글로벌 식품안전 기술의 메카, 네오젠코리아 연구소

고객과 동반 혁신 꿈꾸는 연구와 교육의 집결지

지난해 9월 미국 네오젠(NEOGEN)의 자회사인 네오젠코리아에 쓰리엠(3M) 식품안전사업부가 인수합병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8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식품안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네오젠과 쓰리엠의 조합은 업계에서 강렬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월 네오젠코리아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네오젠코리아의 장대한 성장이 예고됐다. 글로벌 식품안전 기술의 메카가 될 거라 기대를 모이고 있는 네오젠코리아 연구소, 직접 찾아가보았다.

네오젠코리아, 3M 인수합병으로 시장 우위 탈환

미국 네오젠(NEOGEN)은 식품공전 공인 미생물 시험법으로 등재된 페트리필름(건조필름배지)을 국내 유수 기업에 30년 넘게 공급해왔다. 또 다양한 위생, 유해물질 검사장비를 공급해 국내 HACCP 인증을 비롯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솔루션 선두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네오젠은 1982년 설립한 이래 줄곧 식품안전, 동물안전, 유전체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고 곰팡이 독소균 Rapid Test를 최초 출시하는 등 성과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네오젠과 비슷한 시기에 쓰리엠(3M) 식품안전사업부 역시 식품안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고 있었다.

네오젠은 쓰리엠 식품안전사업부와의 경쟁에 몰입하는 대신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그렇게 2022년 7월 22일 네오젠코리아 유한회사가 설립되며 네오젠코리아의 품으로 쓰리엠 식품안전사업부가 인수합병됐다. 이로써 기존 쓰리엠의 제품과 네오젠의 다양한 솔루션이 결합돼 확고한 식품안전분야의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고객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랩, 네이젠코리아 연구소 설립

인수합병을 통해 네오젠코리아는 제품과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 수익 증대에 몰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네오젠코리아는 제품 개발과 연구의 본질, 즉 고객과의 동반 혁신을 꿈꾸는 쪽으로 성장의 방향을 잡았다. 그 신호가 지난 8월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의 설립이다.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고객의 조건에 맞춰 제품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랩의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 실험기술, 식품안전 관리

〈네오젠코리아 연구소 실험실〉

방법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하는 네오젠 아카데미를 겸한다. 연구소는 용인 광교에 위치하며, 200평 규모로 마련됐다.

생긴 지 얼마 안돼 쾌적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연구소는 해당 층에 도착하자 찾기 쉽게 바로 안내표지가 보인다. 사무실 방향으로 복도의 왼편에는 트레이닝 센터, 오른편은 실험실로 나뉜다. 녹색 배경의 네오젠 로고 뒤편으로는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사무실과 회의실을 지나면 3개의 실험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 실험실은 네오젠코리아 기술력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네오젠코리아 연구원들은 다양성을 지니고 인증범위 내에서도 변이가 숱하게 이루어지는 식품안전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과 제품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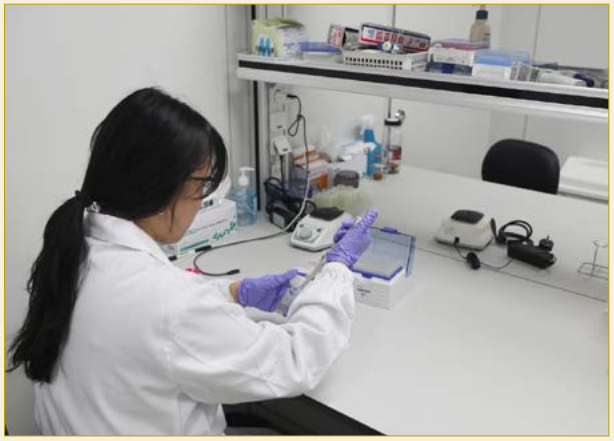
실험실은 국내 어느 실험실보다 월등한 실험 환경을 완성했다. 클린룸과 항온항습시설은 물론이고 개발장비와 실험장비를 두루 갖췄다. 이곳에서 속성 대장균 검사 건조필름배지인 페트리필름(Petrifilm), 식중독균 검사장비인 분자검출시스템(MDS), 식품 성분분석제품(Megazyme), 곰팡이독소 검출제품(Mycotoxin), 잔류유기물인 ATP를 대상으로 신속위생 모니터링이 가능한 위생검사장비(Clean Trace™ LM1), 식품 알러젠 정성검사 키트(Allergen Protein Rapid Kit)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품 시료들을 다양한 실험방법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실험 결과는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데 활용한다.

아울러 장비를 관리하고 수리를 진행할 하드웨어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중인 네오젠의 장비를 보수, 수리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 네오젠코리아가 아시아 시장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네오젠 러닝센터

연구소는 연구 활동과 더불어 교육 기능을 강조한 네오젠 러닝센터를 함께 열었다. 네오젠 러닝센터에서는 미생물 안전 부문에서 근무하는 실무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커리큘럼은 미생물 실험 기초, 위생 지표세균, 식중독균 등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커리큘럼은 점차 확대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 시에는 네오젠 제품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활용한다. 제품 홍보를 위한 교육이 아닌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는 창구로서 운영하는 러닝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일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장은 "고객의 능력이 성장할 때 네오젠코리아가 기여하는 형태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된다. 고객사가 실험 능력, 식품안전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낸다면 네오젠코리아와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전하는
강성일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장〉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트레이닝 센터 내 교육장〉

〈교육장 내 전시공간. 네오젠코리아 제품이 전시돼 있다.〉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제품만을 전제로 한 교육보다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다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솔루션 기업 부속 연구소가 대개 자사 제품 사용방법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트레이닝 센터는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장과 배운 내용을 직접 실험하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데모룸으로 구성돼 있다. 널찍한 교육장의 한쪽 벽면은 네오젠 제품인

페트리필름(Petrifilm), 분자검출시스템(MDS), 위생검사장비(Clean Trace™ LM1), 식품 알러젠 정성검사키트(Allergen Protein Rapid Kit)가 전시돼 있다. 교육장에 연결된 데모룸은 이론교육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 장비가 마련돼 있다.

본 기자가 방문한 날은 고객사의 요청으로 협력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고객사에서 협력업체의 제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요청해왔고, 연구소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교육 마무리에는 수준 평가를 진행해 미흡할 경우 재교육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교육을 마치면 러닝센터 역시 익명의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교육에서 5점 만점에 평균 5점의 평점을 받았다. 연구소가 문을 연지 이제 3개월 남짓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사의 요청과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성일 네오젠코리아 연구소장〉

네오젠코리아 연구소 방문을 마무리하며 강성일 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고객에게 해열제와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다. 약은 치료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과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좋은 솔루션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소는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다.

끝으로 강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분명 고객 가치로 이어진다. 연구소 기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의 동반 혁신을 만들어 글로벌 식품안전 분야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